

3. 2 : 中企協, 국내 중소기업 공장가운데 절반이 비공업지역에 위치해 있어 협동화사업단지조성 확대 등 공장이전 대책이 시급하다고.

3. 5 : 원자력研, 초전도체가 갖는 물체를 띄우는 성질(부상효과)과 잡아두는 성질(속박효과)을 이용, 마찰 저항 없이 고속회전이 가능한 베어링을 개발했다고.

3. 6 : 工振廳, 기술지도 실시 1, 186개사중 종합평가 결과 KS 수준에 도달한 업체는 42개사, 품질관리 등급수준에 도달한 업체는 45개사 등급수준이 상향조정된 기업은 9개사에 그쳐 기술수준이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고.

3. 7 : 機械研, 초정밀수치제어(NC) 선반 및 포장용상자 자동가공기를 개발 했는데 동선반은 가공시 진동정도가 0.001mm, 표면거칠기가 0.001mm수준으로 정밀도가 뛰어나다고.

3. 8 : 遷信部,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정보화사회에 대한 정책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정보화 5개년계획을 수립, 추진키로.

3. 9 : 工振廳, 산업계의 효율적인 품질관리 추진을 위해 품질관리 정보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.

3. 9 : 商議, 로열티나 기술용역비에 대한 관세부과를 한시적으로 유보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, 첨단 기술도입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게 할 것이라고.

3. 12 : 科技處, GNP의 5% 수준을 과학기술분야에 투자하고 과기 분야의 선진 7개국 수준진입 등 2대 과제에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기로 했다고.

3. 12 : 商工部, DB산업의 획기적인 육성을 위해 연내 DB 산업발전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'95년까지 300개의 DB업체를 발굴 육성하고 국내시장 규모를 10억달러 이상으로 육성해 나아가기로.

3. 15 : 政府, 미국이 계속 요구해온 영업비밀보호 및 반도체칩 보호법 제정을 연내 마무리 '92년부터 시행키로.

3. 16 : 商工部, 정부는 중전기기 분야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수출을 크게 늘린 업체의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우선구매토록 할 방침이라고.

3. 20 : 遷信部, 소련이 한국산 전전자교환기의 형식승인을 완료, 합작생산하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.

3. 22 : 貿公, 걸프전 이후의 중동특수와 앤고 지속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 등으로 올해 전자 섬유등 10대 주종상품의 수출이 작년보다 6.9% 늘어나는 537억 8,9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라고.

3. 23 : 中振公, 신영하이터크 등 9개사에 개별정보화 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업체에 총 10억 1,100만 원의 장기저리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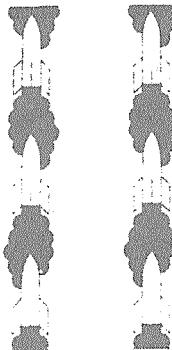
3. 26 : 遷信部, 급증하는 무선헤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용교환기를 설치 독자망을 구성하고 차량전화와 같이 별도의 식별번호를 부여하기로 했다고.

3. 27 : 財務部, '91년부터 정책성 자금은 국책은행만을 통해 공급하고 시중은행의 자금운용은 은행자율에 맡길 방침이라고.

3. 28 : 科技院, 컴퓨터의 키보드를 두드리지 않고 전자평판위에 전자펜으로 글씨를 쓰면 그 글씨를 인식하는 「필기체 한글 온라인 인식 시스템」의 시제품을 개발했다고.

3. 30 : 韓銀, 「90년 국민계정」에 따르면 우리경제 주체들이 국내외에서 산출한 부가가치 총액을 의미하는 GNP는 경상가격기준으로 2,379억 달러에 달했다. 이는 '89년의 2,112억 달러에 비해 실질 가치로 9.0% 증가한 것이라고.

## 電子工業日誌



〈1991. 3. 2~3. 30〉

3. 13 : 관세청, 국내기업의 대미수출 경쟁력강화를 위해 올해안에 미국 현지에 제반통관 업무를 전담하는 통관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고.

3. 14 : EC委, 일본 EP롬의 대유럽 수출에 최저판매가격제를 도입하기로.

3. 14 : 美SIA, BB비율(반도체 수주에 대한 제품출하비율·속보치)이 1.09로 6개월만에 처음으로 1.0을 넘어서 공급과잉으로 부터 수요초과로 반전됐다고.

3. 15 : 工振廳, 제조업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범산업적으로 품질혁신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 전국 주요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계층별 품질경영연구회를 조직 운영키로.

3. 15 : 中振公, 일산 씬텍 등 기술집약형 21개 업체에 대해 창업조성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.

3. 15 : 特許廳, 기업의 경쟁력제고와 개발기술의 종합적인 특허관리를 위해 정보자료국을 신설했다고.